



봉 우 컬럼

오치환 장로를 보내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주님, 아시잖아요! 오치환 장로의 뜻은 속소를 식당으로 만들자는 것이었고, 저와 함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흥분된 열심으로 충성을 다한 것ですよ.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으로 가셨지만,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기도를 위해 헌신봉사, 충성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장성기도원 이곳저곳에 오 장로의 손길이 묻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는 여러 철골 작품을 우리 모두에게 남겨주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선에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분들처럼 새롭고 아름다운 야외식당을 여러분과 나에게 남기겠다고 최선을 다하다 순교했습니다.

“목사님, 2주 연장하세요. 내가 아름답게 꾸밀게요.” 하며 기뻐했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던 오 장로가 공사 중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그리움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과 그리움을 남기고 주님 품에 먼저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선두에서 본을 보인 참되고 모범적인 믿음의 장로였습니다. 나의 자랑스런 장로였습니다. 머잖아 천국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다시 만날 때, 그의 찬란한 면류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위로받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유족들에게도 크신 위로와 확신이 있을 것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 명철 엄마 경자와 손자 명철아!

우리 그날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자.

사랑한다. 힘내자!

2022년 4월 26일 기도원에서
봉우 이초석 목사

오치환 장로 환송예배

코로나로 인해 거의 2년 만에 재개되는 예루살렘기도원 춘계산상집회를 2주 앞두고 기도원의 오치환 장로님이 먼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성산의 녹색이 짙어가는 봄날에 우리는 오치환 장로를 천국으로 환송해드렸다. 비록 이별이 주는 아쉬움과 헛헛함이야 어찌라마는 30여 년 가까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장로님이었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천국 잔치를 준비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입었으니 천국 시민으로서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이시대 목

졌다고 말하곤 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매사 자신이 앞장서서 하겠다는 자세가 몸에 밴 하늘나라 특공대원이 분명했다. 그래서 장로님의 부재가 기도원 식구들에게나 교단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더구나 기도원 구석구석 장로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기에 장로님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한동안 떨쳐내기 힘들 것 같다.

목사님이 얼마 전 설교에서 항상 자신이 있던 곳에 그리움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환송예배 송사

내는 아픔으로 몹시 힘들어하셨을 목사님은 유족을 위로하시는 한편,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오 장로님의 친족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셨다. 또한 교단의 종들과 장로 및 재직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오 장로님의 신앙을 본받고, 곧 있을 천국 잔치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분발할 것을 촉구하셨다.

환송예배를 마치고 참석한 모든 이들은 대성전 옆 안장지까지 도로 옆에 도열하는 한편, 시무장로들의 운구행렬을 뒤따



오치환 장로 환송예배(2022년 4월 28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사님이 환송 설교에서 언급하셨듯이 주 안에서 죽는 복(계 14:13)을 받고,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고 있을 오 장로님 아닌가. 오 장로님을 보내는 환송예배는 모든 이들에게는 더욱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오치환 장로님은 하늘나라 특공대원이었다. 기도원 건축이나 인천교회 건축과 같은 큰 공사는 물론 모든 크고 작은 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를 외치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오셨다. 가장 최근에는 목사님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교회 재건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도 목사님을 따라가서 우크라이나 교회 재건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목사님이 베네수엘라 백만 집회를 말씀하셨을 때는 자신도 동참하여 집회 준비와 경비라도 서

(送辭)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오 장로님은 바로 그 진한 모범을 보이고 가셨다. 내가 떠난 빈자리를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채우느냐, 앞던 이가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하게 만드느냐는 오로지 본인이 그동안 행한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인간의 진면목은 죽었을 때 드러난다고 하지 않던가. 전도서 기자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전 7:1~2)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지난 4월 28일, 교단의 모든 주의 종들과 장로 및 재직들이 기도원에 모여 최고의 예우를 다해 오치환 장로님을 환송해드렸다. 교회장으로 임수된 이 날의 환송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헌신한 충성된 일꾼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다. 아끼고 사랑하는 직원을 먼저 보

르며 찬송을 불렀다. 그 아름다운 광경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천군천사들, 그리고 먼저 간 믿음의 선전들에게 열렬히 환영받았을 오치환 장로님을 떠올리게 충분했다.

늘 순수했고, 늘 흰 이를 드러내며 웃어주던 장로님, 어떤 일에도 ‘아니오’가 아닌 ‘예’로써 순종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신 장로님, 이제 모든 수고를 마쳤으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지만, 아마도 그곳에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테고, 예수님이 천국에 짓고 계신 처소 건축에 어찌면 또 앞장서서 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그게 가장 오 장로님다운 모습이니가.

기도원에 가서 하늘을 보고 웃거들랑 그 흰 이를 보이며 크게 웃어주시길.

‘오 장로님, 안녕. 천국에서 만나요.’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춘계산상집회

장소: 5월 9일(월)~12일(목) 장소: 장성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3:6~9)

성공은 편안하기를 포기한 자들의 몫이다

우리 때 학교 교훈이나 급훈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근면, 성실’이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요즘 애들에게는 이 말이 참 고리타분하게 들리겠지만, 이 말이야말로 만고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부지런할 근(勤), 힘쓸 면(勉), 즉 근면이란 부지런히 일에 힘쓰는 것이요, ‘정성 성(誠), 열매 실(實)’, 성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것일진대 그런 자가 성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까요.

게으름은 악이요 인생을 부식시킨다

한 시대에 맥을 그은 인물들이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같이 편안함을 거부하고 포기한 자들이었습니다. 놀 것 다 놀고, 먹을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성공한다면 누가 편안하기를 거부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누가 부지런을 떨겠습니까? 신나게 놀고, 편히 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결과가 어떤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10:4),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12:24),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잠12:27),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잠13:4),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

부지런과 게으름이 마치 빛과 어둠처럼 상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놀고 싶지만, 쉬고 싶지만 자원하여 편안하기를 거부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일찍이 편안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편안한 길을 버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의 종이라 하는 자가 편안하기를 구한다면 그분의 종이라 떳떳하게 말할 수 없지요. 세상 학문의 박사가 되는 것도 엉덩이에 찔매가 나도록 애써야 이루는 일이지, 명장도 전쟁에 이기기 위해 잠을 잊고 전략 전술을 짜려거든 주의 종이 안일을 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네 시간 이상 자는 일이 없고, 시간이 아까워서 하루 두 끼 먹으며 기도했고, 주경야독의 심정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노력했습니다. 부지런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73개국

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성공은 그림의 떡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자산이 있는데, 그것이 부지런입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아곱에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금의환향할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했기 때문입니다. 압살한 외삼촌 밑에서도 부지런이라는 무기는 통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물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창31:40).

노예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52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일만 에 재 건 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철학자인 다산 정약옹은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면 다 풀린다’고 제자들에게 부지런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옳은 가르침입니다. 부지런은 성공을 위한 확실한 만능키입니다. 부지런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운동하면 건강해지고요, 부지런히 연구하면 실적이 올라가고, 부지런히 소 떼와 양 떼를 보살피면 가축이 늘어나고, 부지런히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부지런히 전도하면 하늘의 상이 늘어나고, 부지런히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지런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부지런히)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부지런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노느라, 자느라 안해놓고 핑계를 댑니다. 어느 주인이 각자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섯 달란

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마25:16)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마25:17)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둘 다 즉시, 곧 부지런히 나가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뒀습니다. 게으름 피운 거지요. 그리고는 주인이 와서 회계하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마25:24~25)라고 핑계를 댔

습니다. 그러자 노한 주인이 핑계나 대고 있는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며 바깥 어둠으로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마25:30). 누가복음 19장에는 므나로 비유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게을러서 이익을 남기지 못한 자를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눅19:27)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악하다’고 했고, ‘원수’라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게으름이 그저 좀 느린 성격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 게으름은 육은 물론이고, 영혼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악이요, 악은 곧 마귀입니다. 즉 게으름은 마귀의 전매특허입니다. 악한 것들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천히 하라고, 내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주인이 도착하는 날까지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만들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 건너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농번기 때 어머니가 그 사람들에게 일하러 오라고 전하

고 해서 가면요, 해가 중천인데도 자고 있습니다. 그들 말인즉 논도 없고, 갈아야 할 밭도 없어 잔다고 했습니다. 핑계입니다. 논도 없고, 밭도 없으니 더 부지런해야지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서 품삯이라도 받아야지요. 그래서 논 한 마지기라도 사야지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나무를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하자 과원지기가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 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게으름을 피웠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요, 1년만 부지런히 노력해도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1년만 부지런을 떨어도 소출을 낼 수 있습니다. 1년만 부지런히 기도해보세요. 1년만 부지런히 책을 읽어보세요. 1년만 부지런히 운동해보세요. 분명한 결과가 나옵니다. 1년을 부지런 떨다 보면 부지런한 것이 습관이 되어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에디슨은 무슨 일을 할 때 시계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부지런하다는 것은 집중력과 상통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손발보다 머리를 부지런히 쓰는 것이 더욱 유익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쇠뿔머리로 엿을 바깥 먹고 말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낫이나 호미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바늘을 만들어 팔아 몇십 배의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머리가 부지런히 돌아가야만 가능하고, 어떤 일에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게으른 천재보다 성실한 사람이 낫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계3:19). 게으른 것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소출이 없었던 것은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삶에 가시덤불이 가득했던 것도 게을러서입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자가 장애인이라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인이 진짜 장애인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중에 제일 큰 장애인입니다. 게으름을 떨쳐내지 못하면 비참한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 ‘~ 때문에’라고 변명하지 말고, ‘게으른 나’와 싸워 이기세요. 그러면 행운도, 성공도 당신에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성경에세이 ::

인생의 우선순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두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한다. 첫째는 ‘그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할걸.’ 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난날에 너무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걸’ 하는 후회를 한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급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일을 미루는 일들이 많다. 젊었을 때는 놀고 싶어 공부를 멀리하고, 결혼해서는 먹고사는 일에 쫓겨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뒤로 미룬다. 먼 훗날 아쉬워하게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후회를 하게 될까? 아마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좀 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지 못했음을 제일 아쉬워하게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셨다. “선생님 이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6~40).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가 분명하다. 첫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둘째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다. 그리고 다음은 나와 나의

가족이고, 그다음은 이웃이다. 순서가 바뀌면 일이 엉클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이 엉클어지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전도하는 순서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다. 먼지가 나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가는 것이다.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는 말씀은 복 받는 순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라는 뜻이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을 바로잡은 일이었다. 하나님보다 로마 교황의 말에 더 권위를 두는 것을 하나님 먼저로 회복한 것이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맨 앞자리에 놓는 종교 개혁을 이끌어낸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도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면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웃보다 내 가족을, 내 가족보다 나를,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의 순서다. 후회 대신 감사로 마무리하는 인생을 만들어가자.

이시대 목사

부모 마음을 헤아려라

여보게!
내 나이 70이 넘었지만, ‘어머니’라는 이름은 여전히 내게 그리운 이름이라네.
생전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를 뵈러 간다고 미리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는 팬히 대문 밖에 나와 빗자루로 골목을 쓸곤 하셨지. 언제 오려나 기다리신 게야. 말로는 늘 ‘바쁘데 올 것 없다’ 하시면서, 어느 장로도 당신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 올까 봐 늘 전화기를 손에 들고 계신다고 말했네. 왜 전화기를 들고 있냐고 하면, ‘아니다’ 그러시면서, 언젠가 내 며느리가 집에 온다고 전화를 했네. 그런데 갑자기 예보에도 없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 나는 ‘우리 애가 올 시간인데.’ 하며 급히 버스정류장까지 우산을 들고 달려 나가 며느리를 맞았네. ‘아버지’ 하고 버스에서 내려 달려오는데 가슴이 찡하더구먼.
언젠가 신문에서 본 기사라네. 자식이 부모를 외지에 버리고 왔는데, 정작 부모는 경찰이 자식 이름이 뭐냐고, 집이 어딘지 물어도 모른다고만 한다네. 그 자식이 다 찡까 봐서야.
또 얘기할까? 가난하던 시절, 어찌다 고등이라도 구우면 어머니들은 ‘난 고등어

안 좋아한다’라며 안 드셨지. 자식들 먹이려고. 그런데 자식들은 ‘우리 엄마는 원래 고등어 안 좋아해.’라며 철없이 다 먹어치우곤 했지.
이게 부모 마음이야. 그걸 자식들이 모르는 게 문제지.

여보게!
옛말에 ‘자식 낳으면 부모 마음 안다’고 했는데, 글썄~. 요즘은 제 자식이 영순위요, 강아지는 1순위이고, 부모는 순위에도 없는 세상이 되었네.
퇴계 이황은 효를 백행지원(百行之源)이라고 했네. 율곡이이는 백행지수(百行之首)라 하여 인류의 가장 으뜸가는 덕목이라고 했고, 하나님도 인간과의 계명 중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네.
효도는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야. 다는 몰라도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아는 것이 효도야.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네. 제발 일회성 말고, 늘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자상한 자식들이 되었으면 하네. 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그리더라고!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그러니 제실 때 잘하게.

봉우



:: 교단소식 ::

그리움을 남기고 간 오치환 장로에게



오 장로야!
이놈아~ 날 두고 네가 먼저 갈 줄 누가 알았나.
내 맘에 큰 그리움을 주고 간 야속한 놈아,
네가 날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는 안다. 어린아이처럼 좋은 생각만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로, 카톡으로 한참 얘기했지. 그때마다 나는 “오 장로야, 너는 참으로 놀랄만한 아이디어맨이야.” 하면 어린아이처럼 신바람 나서 허락해달라며 항상 기쁨으로 즐겁게 일을 했지.
밥 먹을 시간이면, “너 뭐 먹을래?” 하면 어린아이처럼, “아시면서... 그것 있잖아요 하하하...” 하면 나는 “그럴 줄 알았어.” 하며 그 음식을 시켜 함께 맛있게 웃으며 먹던 일이 눈에 선하다.
너는 나를 만날 때마다 항상 “우리 명철이 좀 부탁드립니다.” 했지. 그러면 나는 “알았다, 걱정 마라. 내가 살아있는 한 걱정 마. 반드시 위대한 아들이 될 거야.” 하면 “아멘아멘” 하면서 웃던 네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때마다 나는 “너야말로 아내를 잘 얻었지. 네 아내는 내가 기도원에 가면 밤늦게라도 명철이 데리고 와서 개인 교육 받게 했단다.”라고 얘기하면 좋아하던 네 모습이 이제 옛일이 되었구나.
네 아내는 내가 딸처럼, 명철이는 손자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주님 품에서 편히 쉬거라. 네가 그렇게 원하던 기도원 야외식당, 멋지게 만들게.

오 장로야!
내가 너를 믿었다는 말과 사랑했다는 말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항상 조급하지 마라, 덤비지 말고 여유를 가지라 했는데, 그날은 왜 그랬니?
날이 갈수록 기도원식구들도 네가 그리울 거다. 항상 ‘내가 있던 곳에 그리움을 남기고 가라’고 가르쳤지만, 그걸 바로 실천해버릴 줄을 정말 몰랐구나. 너를 향한 그리움으로 이곳은 묵놓아 울고 있다.
오 장로야! 사랑한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벌써 네가 많이 그리다. 네가 그리울 때마다 꿈속에 꼭 찾아와야 한다. 머잖아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2022년 4월 28일 기도원에서 봉우 이초석 목사

:: 간중 ::

::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한 달 전, 오전 10시부터 5~6시간이란 긴 시간 동안 아빠는 갑상선암과 신장암 수술을 받으셨다. 연세도 많으신데다가 두 번째 수술이어서 사실 수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 받길 원했다. 그래서 아빠 입술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응답해주셨고, 난 기도한 것은 100% 믿기 때문에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수술이 끝난 시간이 오후 5시였다.

그날 저녁에 교육관 사무실에서 혼자 많이 울었다. 오랜만에 하나님께 원망을 퍼부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안다. 그런데 굳이 수술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미웠다. 한편으론 전도사인 딸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에 더 간절히 기도했고,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날 밤, 기도하면서 원망을 퍼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애야~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며 수조억 개의 피줄을 맞추고 있단다. 나는 당연히 너희 아버지의 암 2개를 수술 없이 다 고쳐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조억 개 피줄을 맞추는 과정에서 수술로 고쳐야 할 이유가 있단다. 너는 모르지만 나는 다 안단다. 그리고 그 일은 너에게도, 네 아

버지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내가 약속해주었기 때문이란단다.” 머리로써는 이 말씀을 이해가 되었는데 내 마음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는 마음이 극도로 힘들 때면 누구에게도 나의 마음을 내비치지 않는데 이번 일이 그랬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티 내지 않고 나 혼자 끔꿨다. 그런 내 모습에 안쓰러우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 위로해주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3개나 보내주셨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먹고 싶은 거 있냐고 사준다고 연락이 오게 하셨는데 내가 거절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병원에 있는 아빠로부터 사진과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빠는 수술한 당일에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으며, 수술 다음 날에는 오전 8시부터 병원을 걸어 다니셨단다. 그래서 병원 사람들이 다들 신기해했다며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이조석 목사님의 안수와 가족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하셨다. 고스란히 수술을 받으셨지만 아빠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셨다. 이 메시지를 보며 또 한참을 울었다. 어제 종일 하나님을 원망한 그 원망에 대한 죄송함과 내 생각과는 달랐지만 결국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이다.

《고통이 사라지네》

홀로 깊은 밤 감람산 기슭에서 새벽이슬 내리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잔이 지나가길 얼마나 기도 드렸을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제자의 배신으로 파르든 군중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 손목 위에 대못이 박히고 십자가 매달릴 때 얼마나 아팠을까 십자가에 매달려 갈증 가운데

그가 필립은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십자가 십자가 생각만 해도 이 아픔 이 고통 어느덧 사라지네 수술받고 며칠 뒤 새벽에 아빠가 쓴 시라며 가족 카톡방에 공유해주었다. 새벽 3시에 보내온 걸 보니 통증으로 편히 잠을 못 주무셨나 보다. 그 통증을 예수님의 고통에 비유하며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쓴 이 글에 또 엄청난 감사가 나왔다. 나는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꼭 귀에 통증이 온다. 어느 날, 신학원 수업이 없는 날이라 나름 푹 잤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통증이 왔다. 평균 10초에 한 번씩 귀가 찢길 듯한 통증이 와서 많이 예민해져 있었다. 그때, 아빠의 이 시가 생각났다. ‘나는 귀통증을 느끼면서 예민해져 있는데 아빠는 암 수술 후의 통증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에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신 아빠와 나의 영적 깊이의 차이가 느껴졌다.

병원에서 병실이 부족하다고 퇴원하라고 해서 원래 동네 병원에 다시 입원하실 예정이었는데 담당 의사가 보더니 아빠 수술 경과가 너무 좋다고 그냥 집으로 가시라고 하더라. 그래서 1주일 만에 집에 오셨는데 얼굴을 보니 광채가 난다. 전혀 수술한 사람 같지 않고,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셨다. 내가 아빠한테 아빠가 그렇게 수술이 잘 끝난 건 다 내 기도 덕이라고 생색을 냈더니 엄마는 나한테 교만하지 말라고 혼내시는데 도리어 아빠가 ‘아멘!’ 하고 화답한다 ㅋㅋㅋ.

암에 걸리기 전만 해도 교구전도사인 엄마, 서울 교육부 전도사인 나, 인천 교육부 전도사인 동생을 향해 돈도 못 벌어오는 것들이라며 무시하고 멸시, 천대하던 아빠가 180도 변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빠가 우리 가정의 영적 가장이 될 거라고 꿈으로 약속해주셨다.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곽신에 전도사

다시 시작하자!

지난 부활절, 청년부는 젊은이들의 거리로 유명한 서울 연트럴파크에서 노방전도를 하였다.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마음이 쑥쑥 얼어붙은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그동안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런 가운데 총회장 목사님께서 5월 기도원 집회를 새로 계획하시고, ‘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뜻이 맞는 젊은이들과 함께 부활절 노방전도를 기획하고 장소를 물색하였으며, 한마음, 한뜻으로 거리로 나갔다. 이날은 특별히 햇볕이 쨍쨍하고 하늘은 청명한 날씨가 지속되었는데 전도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해주시는 느낌이였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 준비한 것이 비록 작은 달걀과 요구르트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기에는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이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전도를 하려니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두려운 생각이 앞서고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다. 그럼에도 함께하는 형제자매가 있기에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쳤다. 그랬더니 저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거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기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도용품인 ‘He is Risen(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써진 헬륨 풍선을 받기 위해 저마다 줄을 서고 서로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렇게 노방전도가 끝날 무렵, 전도 장소 주변 여기저기에 예수님이 그려진 선물들을 한 손 가득 꼭 쥐고 있는 행인들을 보면서 이 작은 복음의 씨앗이 오늘 이 땅에 뿌려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내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기쁜 일을 하게 하셨을까 깊은 감회가 물려들었다. 그리고 이런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신 총회장 목사님께 감사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송현혜

:: 일본에서 온 편지 ::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트너십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포츠에는 복식경기가 있는데, 복식경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둘이서 함께 경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파트너와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파트너와 호흡이 잘 맞으면 개인의 실력보다 월등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파트너와 호흡이 잘 맞지 않으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데 이것이 파트너십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로 생각한 사람

은 없었지만, 오직 다윗 자신만은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파트너십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 분명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와 파트너십을 함께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좋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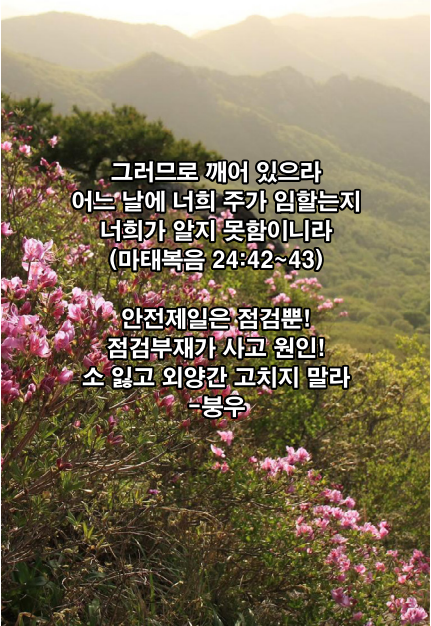
사도 바울도 자신은 늘 약하지만 위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파트너십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아무리 원작이 우수해도 번역이 어설프면 작품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확실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매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13:20).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42-43)

안전제일은 점검뿐! 점검부재가 사고 원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 “봉우